

< 제 6 장 >

요 6:1-15 오병이어 (마14:13-21 막6:33-44 눅9:10-17)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한 유일한 기적 사건이다(예수님의 부활 제외).

이는 이 사건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군중을 향한 긍휼하심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메시아이심을 증거케 하시려는 표적의 하나였다.

요한이 사용하는 “표적”(σημεῖον)은 단순한 “기적”(δύναμις,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를 가리키는 계시적 사건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오병이어는 배고픔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통로였다. 복음서에 모인 무리가 남자만 5,000명이라 한 것으로 보아 여자와 아이 합하여 10,000명은 넘었을 것이다. 당시 유대 사회의 인구 계수 방식은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 많은 무리를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먹이고도 남겼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일은 분명한 사실이다.

사복음서 모두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초대교회가 이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확신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이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표적은, 단순한 공급이 아니라 메시아적 계시이다.

요 6:5-6 예수님의 질문과 빌립의 시험

<6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아시고”(ἤδεις 에이데이. οἶδα 오이다의 과거형)는 단순한 정보적 앎이 아니라, 이미 결과를 포함한 완전한 인식을 뜻한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아심”은 신적 통찰과 연결되며(요2:24-25), 우연한 판단이 아니라 주권적 계획 속의 행동임을 드러낸다.

‘요5:6 38년 병자를 보시고’(εἶδω 에이도) / ‘막6:48 풍랑 당함을 보시고’(εἶδω 에이도)에서의 ‘εἶδω’(에이도)는 단순한 시각적 관찰이 아니라, 관심과 돌봄이 포함된 인식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 형편을 주의 깊게 살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다.

“시험”(πειράζω. 페이라조)은 시련하다. 시험. ~을 증명하기 위해 Test 하는 것.

하나님의 시험은 파괴가 아니라 연단의 목적을 가지며(약1:2-3 참조),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고 검증하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빌립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항상 보고 계시며, 생각, 행동, 삶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계신다. 이것은 감시의 의미가 아니라 언약적 돌보심의 의미이다.

예수님은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미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다.

요6:6의 “아시고”라는 표현이 바로 그 신적 예비하심을 뒷받침한다.

우리 사역에도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이미 준비하셨고 예비해 놓으셨다.

이는 인간의 무책임을 허용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적 섭리를 신뢰하라는 요청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선택과 순종만이 있을 뿐이다.

예수님은 권능으로 군중을 먹이실 대책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이다.

<마6:31-33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아시느니라”(οἶδεν 오이덴)는 현재형으로, 지속적인 하나님의 아심을 의미한다.

또한 “먼저”(πρῶτον 프로톤)는 시간 순서보다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표현이며, “더하시리라”

(προστεθήσεται 프로스테데세타이)는 수동태로 하나님이 공급의 주체이심을 드러낸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번영의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삶의 중심에 두라는 요청이다.

이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 풍성함은 물질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충분함을 의미한다.

빌립에 대한 ‘시험’(Test)은 영적인 신앙에 대해 하신 것이었다. 그는 먼저 계산하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빌립과 같이 순간순간 이러한 시험을 하실 때가 있다.

이것은 나를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사용코자 하심이니,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시험은 실패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요 6:7-9 빌립이 예수님 말씀에 먼저 한 것은 ‘셈’이었고, 안드레는 상황 파악이었다.

‘데나리온’(δηνάριον) : 4.3g 로마의 은화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다.(마20:2)

빌립은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라고 말하며,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데나리온(δηνάριον)을 기준으로 약 8개월의 임금을 계산하였다. 그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계산의 정확성에 있지 않고, 계산의 전제에 있었다. 그의 계산에는 인간의 자원만 포함되어 있었고, 예수님의 능력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그는 문제의 크기를 보았으나 문제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이다.

반면 안드레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라고 덧붙였다. 안드레 역시 한계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한계를 자기 안에 붙들어 두지 않고 예수님께 가져왔다. 그의 행위는 완전한 믿음의 선언은 아니었으나, 최소한 자원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행위였다.

요한은 이 대비를 통해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드러내고 있다.

요 6:14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란?

그들은 예수님을 모세처럼 저희의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실 ‘선지자’로 알았던 것이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란 신18:15 말씀하신 ‘선지자’를 가리킨다.

여기서 “그 선지자”(ὁ προφήτης. 호 프로페테스)는 단순한 예언자를 뜻하는 인물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특정한 인물을 지칭한다.

(신 18:1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시리니...)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단순한 후계 예언자가 아니라, 모세와 같은 권위와 중보적 역할을 가진 인물을 가리킨다.

유대 전통 속에서 이 말씀은 종말론적 인물, 곧 메시아적 선지자에 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요 6:16-21 물 위로 걸어오시어 풍랑을 잔잔케 하심. (마14:22-33 막6:45-52)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 벳세다로 보냈는데, 새벽녘에 심한 풍랑으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자 물 위로 걸어오시어 풍랑을 잔잔케 하시어 제자들을 구원한 것에 대한 말씀이다.

요한은 이 사건을 간결하게 기록하지만, 공관복음과 함께 보면 제자들의 두려움과 예수님의 권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1. 예수님은 제자들이 위험에 처한 줄 어떻게 아시고 물 위로 걸어 오셨는가?

예수님은 밤 사경(새벽3-6시)에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이 탄 배로 오셨다. 당시 유대 시간 구분에서 밤은 네 부분으로 나뉘었으며, 사경은 가장 어둡고 피로가 극에 달하는 시간대이다.

이때 예수님이 계신 곳과 배와의 거리는 약 3mile(약 25~30 스타디온)나 떨어져 있었고, 새벽 어두운 시간이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 위급한 지경에 있는 것을 보고 계셨다. 보고 계셨기에 제자들이 위급하다는 것을 아시고 오셨던 것이다.(막6:48)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심’은 감시가 아니라 보호와 동행의 의미를 가진다.(시121편 참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제자들이 위험에 처하였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마28:20](#)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은 일시적 방문이 아니라 지속적 임재를 의미한다.

2. 제자들이 탄 배가 고난을 당한 이유?

믿는 우리들에게는 세 가지의 이유로 겪는 고난이 있다.

① 나의 잘못으로 받는 하나님의 징계 ②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 ③ 사탄의 유혹과 참소

‘징계’는 나의 잘못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벌이며 이 징계를 통하여 참 신앙을 갖도록 하며,

‘연단’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가치 있는 자를 만들기 위해 주는 고난이며,

‘시험’은 연단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가를, 쓰임 받을 자격이 되는 가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릇이 되는 가를 가름하시기 위해 주시는 고난이다.

‘참소’는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일러바치는 것인데,

사탄은 신자를 죄로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도록 하여,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탄의 참소’이다.(계21:10)

그러므로 모든 고난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으며, 분별이 필요하다.

결론은 그 고난들을 통해 연단하시며,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이다. 본문에 제자들이 풍랑의 고난을 겪은 것도 시험이며 연단이였다.

<[마 14:32](#)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예수께 절하며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였다.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수년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았고, 불과 몇 시간 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보고 체험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메시아로 온전히 믿지 않았던 것이다.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체험한 후에야 그 고백이 더 분명해졌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러한 믿음을 아시고 풍랑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신실하고 확고한 믿음을 주시기 위한 고난이였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아심”은 계획 없는 대응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주권적 인도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고난은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된 고백으로 이끌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요 6:22-25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상황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도 찾았다.

요한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건너와 예수님을 찾았다고 기록한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어떤 기대를 품은 적극적인 추적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동기는 순수한 신앙적 갈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유익에 대한 기대였다.

요 6:26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라는 말씀은 그들이 기적 자체는 보았으나, 그 기적이 가리키는 의미는 보지 못했음을 지적하신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보다”(ὄρω)는 단순한 시각적 인식이 아니라 깨달음의 차원을 포함한다.

그들은 떡이 많아진 현상은 보았으나, 그 떡이 가리키는 메시아적 계시는 보지 못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인 것은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심을 나타냄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었는데, 그 무리들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

요한복음은 기적을 단순한 능력 과시가 아니라 “표적”(σημεῖον)이라 부르며, 그 표적은 언제나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향성을 가진다.

그들은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에게 나아온 것이 아니라, 표적의 결과물에 머물러 있었다.

계시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이지, 인간의 욕구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 시대 무리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앙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수단으로 삼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신앙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전락할 때, 우리는 이미 표적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한가? 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신앙이 구원을 향한 것인가, 아니면 필요 충족을 위한 것인가를 스스로 물어야 한다.

믿음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이다.

만일 우리의 신앙이 상황이 어려울 때만 작동하고, 필요가 채워지면 멈추는 것이라면, 우리는 떡을 구하는 무리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표적을 넘어 표적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며, 예수님을 삶의 목적 그 자체로 삼는 것이어야 한다.

<표적> (σημεῖον 세메이온)

“σημεῖον”(세메이온)은 단순히 놀라운 사건을 뜻하는 “기적”(δύναμις 뉘나미스)과 다르다.

‘δύναμις’가 능력 자체를 강조한다면, ‘σημεῖον’은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표식’(sign)이라는 뜻을 가진다. 표적은 기적을 일으킨 사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는 진리를 드러내는 계시적 의미의 본질을 말한다.

요한복음에는 일곱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요2장),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요4장),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요5장), ‘오병이어’(요6장), ‘물 위를 걸으신 사건’(요6장), ‘맹인을 치유한 사건’(요9장),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요11장)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계시하는 표적이었다.

따라서 표적은 믿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도하는 통로이다.

표적은 목적이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이며,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드러나는 예수님의 정체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

표적이 멈추는 지점은 놀라움이지만, 표적이 완성되는 지점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표적은 감탄을 일으키는 현상이 아니라, 신뢰를 일으키는 계시이다.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표적은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표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표적은 구원의 문이 된다. 따라서 표적은 믿음을 대신하지 않는다. 오히려 참된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길목이며, 계시를 통해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이다.

만일 사람이 표적에서 멈춘다면, 그는 사건만 보고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를 깨닫는다면, 그 표적은 참된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표적은 현상이 아니라, 영혼을 깨우는 계시이다.

그 방향성은 언제나 예수님의 존재와 사명, 곧 구원으로 향한다.

요한은 이 표적들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드러낸다.(20:31)

요 6:27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 이까?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배를 채우는 떡이었으나,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양식을 말씀하신다.

- “인자”(ὁ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 호 휘오스 투 안트로푸)라는 표현은 메시아적 칭호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은 존재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양식은 인간이 스스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이신 예수께서 주시는 것이다.

- “썩을 양식”(ἀπολλύμι βρώσις. 아폴뤼미 브로시스) : 멸망시키는 양식. 영생의 반대.

‘ἀπολλύμι’는 ‘멸망하다, 파괴되다’. 일시적이고 결국 사라질 것을 가리킨다.

‘βρώσις’는 먹는 것, 음식이다. 따라서 “썩을 양식”은 단순히 부패하는 음식만이 아니라, 결국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사라질 모든 것을 포함한다.

- “세상적인 양식” : 자신의 욕망을 위해 추구하는 것들.(우상숭배. 탐심. 명예. 권력. 부귀)

- “영생하는 양식”(αἰώνιος ζωὴ βρώσις. 아이오니오스 조에 브로시스)

‘αἰώνιος’는 단순히 ‘끝이 없는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생명을 뜻한다.

“ζωή”(조에)는 반복되는 핵심 단어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 생명을 의미한다.

- ‘구원으로 인도하는 양식’: (말씀. 기도. 순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들)

이러한 요소들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통로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양식의 실체는 예수님 자신이시다.(요6:35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얻으려면 너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들을 위해 일하라. 그러면 이 필요한 것들은 준비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줄 것이다.’

여기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βρώσιν μένουσαν εἰς ζωὴν αἰώνιον)은 인간이 만들어 내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다.

“있는”(μένω, 메노)은 ‘머무르다, 지속하다’는 뜻으로, 썩어 없어질 양식과 달리 영원히 남는 것을 의미한다. 준비되어 있는 양식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단순히 영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영생의 실체이시며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을 구원하시며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 우리들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 것이다.

여기서 “일”(ἔργον, 에르곤)은 인간이 공로를 쌓는 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말씀하신다.

이 “일”(ἔργον 에르곤)은 무엇을 더하는 노동이 아니라, 보내신 이를 믿는 믿음의 행위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자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다.

구원은 성취가 아니라 받는 것이며, 공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마6: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썩을 양식과 영생의 양식 우선순위를 분명히 보여준다.

“먼저”(πρῶτον)는 단순한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가치의 우선순위를 뜻하며,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이 공급의 주체이심을 나타낸다.

우리가 구원을 추구할 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는 약속이다.

그러므로 신앙은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금욕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선에 두는 삶이다.

결국 예수님은 떡을 주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28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유대인들이 질문한 ‘일’(ἔργα. 에라)은 ‘일’(ἔργον 에르곤)의 복수로서 여러 행위를 의미한다. 유대인들은 행위를 통해 의에 이르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는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 온 그들의 신앙 전통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질문이었다.

그러나 2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work)은 단수이다.

29절에서도 “ἔργον” 단수로 사용하며,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이 ‘일’(work)이란 신앙을 의미한 ‘그리스도 안에 안식’을 말한 것이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는 신뢰를 포함한다.

지금도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자신도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자기 생각과 의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마음은 아름다운 신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 자체보다, 그 열심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보신다.

행위가 믿음을 대신할 수 없고, 믿음 없는 행위는 본질을 잃기 쉽다.

믿음이 없는 수고는 종교적 활동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되기는 어렵다.

‘하나님의 뜻’이란 각자에게 명하신 ‘일’, 곧 ‘사명’을 말한다.

이 사명은 단지 외적인 사역이나 직분 수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그 안에 거하는 삶을 포함한다.

그 사명을 행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다.

여기서 믿음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난다.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 안에서 지속된다. 시작도 믿음이요, 유지도 믿음이다.

그래서 구원은 나의 의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뜻을 행하는 힘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믿음 자체도 은혜의 선물이다.

인간이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역사하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의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은혜가 근원이 되고, 순종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

공로로 쌓아 올리는 구원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완성되는 구원이다.

요 6:30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다시 표적을 요구하는 이 질문은, 그들이 기적의 의미를 깨달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기적을 보았으나, 그 기적이 가리키는 분을 보지 못하였다. 요한복음에서 “보다”(θεωρῶν)는 단순한 시각적 인지가 아니라, 계시를 인식하는 영적 깨달음을 포함하고 있다. 즉 눈으로는 보았으나, 믿음의 눈으로는 보지 못한 것이다.

그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준 사건(출16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31)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라는 말 속에는, 모세의 권위를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당시 유대 전통 속에서 모세는 만나를 통해 백성을 먹인 지도자였고, 종말에 또 다른 모세 같은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였다. 그들은 신명기 18장에 약속된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능력으로 백성을 인도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더 큰 표적을 요구한 것이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모세의 만나와 비교하며 더 확실한 증명을 요구하였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조건적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였다.

그들의 질문 속에는 “당신이 모세보다 더 큰 자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요구가 깔려 있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증거를 요구하였다.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증명이 먼저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큰 표적을 보여주시기보다, 자신이 곧 표적의 실체임을 선언하셨다.

모세가 준 만남은 하늘로부터 온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공급의 수단이었으나, 예수님은 참 하늘의 떡이시며 생명 그 자체이시다.

그러므로 더 큰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또 다른 기적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35절)라는 자기 계시로 응답하셨다.

31-36절 “내가 생명의 떡이다.” 곧 “내가 표적이다.” 그러니 그 표적인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라고 하시며, 모세가 준 만나와 자신을 대비하신다.

모세는 떡을 주었으나, 그 떡을 먹은 자들은 결국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영생에 이르게 하므로, 예수님은 참된 생명의 양식인 것이다.

여기서 “나는 ~이다”(ἐγώ εἰμι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출3:14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와 연결되는 계시적 선언이다.

“ἐγώ εἰμι”는 헬라어 문장 구조상 굳이 주어를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데, ‘ἐγώ’를 앞에 두어 강조한 것은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선언적 표현이다.

요한복음에서 이 표현은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신적 자기계시의 형식을 띠고 있다.

예수님은 단순히 떡을 주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곧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생명’(ζωή)은 육체적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 생명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을 공급하는 중개자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시다는 말씀이다.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 같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멸망하니 그 생명의 떡인 나를 믿고 영생을 얻어라.’ 요한은 여기서 먹는 행위를 믿음의 비유로 사용하고 있다.

먹는 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을 자기 안으로 들여와 생명과 결합시키는 행위인 것이다. 믿음도 이와 같다.

요 6:37-40 구원의 조건

6: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ὁ δίδωσιν μοι ὁ πατήρ. 호 디도신 모이 호 파테르)라는 표현은 구원의 출발점이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있음을 보여준다.

구원의 시작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내게 오는 자”(ὁ ἐρχόμενος. 호 에르코메노스)라는 말씀은 인간의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응답을 포함한다.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제시하고 있다.

38절 “하늘에서 내려온”(καταβέβηκα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카타베베카 에크 투 우라누)은 예수님의 기원과 권위를 분명히 한다.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치(ἐν)를 보여준다.

39절 “잃어버리지 아니하고”(μη ἀπολέσω. 메 아폴레소)는 단순한 보호 차원을 넘어, 궁극적 보존과 완성을 의미한다.

‘ἀπόλλυμι’(아폴로미)는 멸망하다, 잃다라는 뜻인데, 이를 부정함으로써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실패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이는 단순한 현재의 안전이 아니라, 종말론적 완성까지 포함하는 보존을 의미한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함이라.”

“보고”(θεωρῶν)는 단순히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주목하고 인식하는 것으로, 이는 표면적 시각이 아니라, 대상을 관찰하고 그 의미를 깨달는 차원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아들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깨달는 것을 뜻한다. 곧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알아보는 영적 통찰이다.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인데 그 영생이 바로 “생명의 떡”이며 그 ‘생명의 떡’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며, 예수님의 사명을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사명은 단순한 교훈 전달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어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생은 어떤 개념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생은 추상적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와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생명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곧 영생의 시작이며, 마지막 날에 부활로 완성된다.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영생의 구조이다.

요 6: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끌어내다”(ἐλκῶ 헬퀴오)는 ‘끌어당기다’, ‘끌어내다’는 뜻을 가진다.

이 단어는 억지로 끌여가는 폭력이 아니라, 강력한 영향력 있는 끌어당김을 의미한다.

외적 강요가 아니라, 내면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이다.

같은 단어가 “**요12:32**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사용되었다.

여기서 “들리면”은 십자가에 달리심을 가리키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작용하여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한다는 뜻이다.

인간이 스스로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움직이시고 방향을 전환시키신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에 의해 이끌리어 나온 자이며(부름을 받을 때), 이 은혜는 택한 모든 자에게 미치나 선택은 자신의 몫이다.

은혜는 강요가 아니라 초청이며, 부르심은 억압이 아니라 감동이다.

요한은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지 않고, “주시는 자”(ὁ δίδωσιν μοι ὁ πατήρ)와 “오는 자”(ὁ ἐρχόμενος)를 나란히 놓고 있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인간이 믿음으로 응답하며,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마지막 날에 완성하시는 은혜의 역사이다.

※하나님은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는 ‘헬퀴오’의 은혜를 주신다. 또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필요한 사역자들을 붙여 주신다. 성경에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행8장)의 만남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신다. 구원은 개인적 결단이지만, 그 결단은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사역자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예외는 있지만) 본인이 그 사역자를 찾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결단과 응답이 요구된다.

37절 “그가 내게로 올 것이요”(ἔκω 헤코. ~에게 오다. 결단하다. 도달하다)>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구원은 강요된 결과가 아니라, 은혜에 의해 가능해진 자발적 응답이다. 하나님은 먼저 끌어당기시고, 인간은 그 은혜에 응답하여 나아온다. 그 나아옴 속에서 영생은 시작되고, 마지막 날에 완성된다. 이것이 ‘구원’이다.

- 구원의 조건.

① 하나님께서 택한 자.(**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헬퀴오’의 은혜)

이는 구원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주고 계시는 은혜의 역사를 나타낸다.

구원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44절**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의 먼저 끌어당기심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며, 구원의 근원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

② 예수님을 구원자이신 메시아로 믿고 영접한 자.(**37절** 내게 온 자)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신뢰하고 받아들임이다. “내게 오는 자”는 단순한 공간적 이동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요한복음에서 “오다”는 예수께 자신을 맡기는 행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믿음은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삶의 주권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결단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끌어당기시지만, 인간은 믿음으로 응답하여 나아온다.

③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40절 믿는 자 - Believe)

요한복음에서 “믿다”(πιστεύω)는 현재 분사형으로 자주 사용되며, 이는 지속적 신뢰를 의미한다. 믿음은 한순간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삶이다. “보고 믿는 자마다”에서 “믿는”(πιστεύων 피스튜온) 단어는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과거 어느 시점의 결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이다.

-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 ① ‘내쫓지 아니하리라’ : 어떠한 죄악이나 형편에 있더라도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는 구원의 확실성을 보여준다.
- ②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 악한 영들의 참소와 유혹에서 종이 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한다.
- ③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 개인의 죽음 이후의 구원뿐 아니라, 종말의 부활을 포함한 총체적 구원을 의미한다.(계20:12-15 참조)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날”(ἔσχατη ἡμέρα)은 반복적으로 언급되며, 현재의 믿음이 미래의 부활로 완성됨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구원은 현재적 소유이면서 동시에 종말론적 완성이다.

- 요한복음에 나타난 “믿음”

삼 복음서에서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로 “πιστις”(피스티스)라는 명사와, 동사형 “πιστεύω”(피스튜오, Believe)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명사형 “πιστις”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 동사형 “πιστεύω”가 사용되고 있다.

이는 요한이 믿음을 고정된 개념이나 소유물로 설명하기보다, 살아 있는 관계적 행위로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한복음에서 “믿는다”(πιστεύω)는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믿음은 추상적인 교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이 사용하는 “믿음”(Believe)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포함한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는 길을 제시한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일 뿐 아니라, 구원을 지속하는 삶의 방식이다.

요한복음에서 믿음은 순간적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 신뢰이며, 고백이면서 동시에 순종이다. 결국 요한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관계적 신뢰이며, 그 신뢰 안에서 거하며 순종하는 삶이 곧 구원을 이루어 가는 길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요 6:48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37-40절 참조)

예수님이 구원(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셨다.

<요 14:6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과 연결하여 볼 때, 예수님은 구원의 통로일 뿐 아니라 구원의 본질이심을 드러내신다.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계시를, “생명”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께 인도하는 안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시며, 그 ‘길’ 안에 이미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생명의 떡’이라는 선언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구원임을 밝히는 계시이다.

그러므로 “내가 곧”(ἐγώ εἰμι) 선언은 예수님의 사명과 정체성을 동시에 드러낸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시며, 구원의 내용이자 구원의 완성이시기 때문이다.

요 6: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내려온”(καταβάς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은 하늘로부터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리키며 예수님 존재의 근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수님은 단순한 땅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세상 안에서 시작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로서(요1:3)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적 사명 수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시는 신적 사명이다.

여기서 “떡”(ἄρτος)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을 가리키는 상징이다.

요한복음에서 ‘ἄρτος’(아프토스)는 오병이어의 물질적 떡에서 출발하지만, 점차 영적 실체로 전환된다. 예수님은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며, ‘떡’을 자신의 ‘살’(σάρξ)과 동일시하신다. 이는 성육신과 십자가를 함께 내포하는 표현이다.

‘말씀’(λόγος)이 육신이 되셨고(요1:14), 그 육신을 내어주심으로 생명이 주어진 것이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는 말씀은 대속적 의미를 포함한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ὕπερ τῆς τοῦ κόσμου ζωῆς)이라는 표현은 ‘대신하여’라는 뜻을 가지며, 신약에서 대속적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을 암시한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순교가 아니라, 세상을 대신한 구속적 희생이다.

‘떡’을 먹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의미인데, 이는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효력을 자신 안에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먹는 행위는 외적인 동조가 아니라, 존재 안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요한은 ‘먹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믿음이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연합임을 강조한다. 이는 단순히 십자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자신의 생명으로 삼는 것으로서, 이는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적 사실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예수님과 연합하여 생명을 얻는 것이다.

요 6:53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것이다.

“먹다”(φάγω 파고)와 “마시다”(πινω 피노)는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존재 안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적 행위를 가리킨다. 예수님은 충격적인 표현을 통해, 생명이 단지 교훈을 듣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사실을 강조하신 것이다.

요 6: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마26:26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는 죄 사함을 위한 언약적 희생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해 사역을 이루는 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십자가 길’의 동참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나 그 동참은 공로를 더하는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들이 “영생을 가졌고”. “가졌고”(ἔχει 에케이)는 영생이 미래의 약속일 뿐 아니라 현재적 소유임을 나타낸다. 이는 ‘구원받을 자격’을 소유했다는 의미로, 이러한 자에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 심판 날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다.

요 6: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거하다”(μένω 메노)는 지속하다, 떠나지 않다는 뜻으로 단순한 일시적 관계가 아니라 지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관계의 상태를 가리킨다.

믿음은 외적 동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와의 내적 연합이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고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 예수님의 생명 안에 머물고 연결된 상태를 의미한다.

요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와 같이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적 연합을 말한다.

성도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먹는다’는 표현은 단순한 상징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와의 연합 속에 머무는 삶을 의미한다.

결국 영생은 그리스도와와의 연합 속에서 시작되며, 그 연합이 지속되는 것이 곧 거함이다.

믿음은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거함으로 유지된다.

요 6:60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어렵도다”(σκληρός, 스클레로스)는 단순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힘들다’, ‘거칠다’, ‘부담스럽다’, ‘마음에 거슬린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 단어는 감정적 저항을 포함하는 표현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적으로 난해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기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진 것이다.

그들은 떡을 원했으나, 예수님은 자신을 먹으라 하셨다. 그들은 기적을 원했으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셨다. 그들은 물질적 공급을 기대했으나,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요구하셨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임의 문제였다.

문제는 마음의 거부였다. 생명의 말씀은 들었으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어렵다”고 말하며 물러선 것이다.

요 6:61-62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찌하려느냐?

“걸림”(σκανδαλιζει)은 ‘넘어지게 하다’, ‘실족하게 하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육신의 진리는 인간의 기대와 다르기에 걸림이 된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자신의 승천을 말씀하시며, 하늘로부터 오셨음을 다시 드러내셨다.

이는 단순한 선지자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오가시는 존재임을 계시하는 말씀이다.

요 6: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ζωοποιουῖν 조오폰이운)은 생명을 주는 능동적 사역을 뜻한다.

육은 무익하다는 말씀은 육체 자체가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적 이해와 노력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생명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주어진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영과 생명을 담고 있는 말씀이다.

말씀은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가 아니라, 생명을 내포한 계시이다.

요 6:64-65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강조된다. 예수님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음을 아셨고, 그들의 불신이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니라 영적 상태의 문제임을 밝히신다.

“허락하지 아니하시면”(ἐὰν μὴ ἢ δεδομένον)은 수동형으로, 믿음이 인간의 독립적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안에서 가능함을 나타낸다.

즉, 믿음은 인간의 자발적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과 주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여 인간이 자동으로 믿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은혜는 강요가 아니라 초청이며, 허락은 억압이 아니라 가능케 하심이다.

하나님은 길을 여시지만, 인간은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

믿지 아니함은 단순한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적 거부이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받아들여 하지 않은 것이다. 불신은 무지가 아니라 저항이며, 깨닫지 못함이 아니라 따르지 않으려는 결단이다.

예수님은 이 불신을 단순한 오해로 보지 않으시고, 영적 거부로 받아들이신다.

구원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간이 응답하며, 그 응답 안에서 믿음이 드러난다.

그러나 허락을 거부하는 책임 또한 인간에게 있는 것이다.

요 6:66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장면은 요한복음 6장의 분기점이다. 표적을 보고 따르던 무리와, 말씀으로 인하여 떠나는 제자들이 분명하게 대비된다. 표적은 그들을 모이게 하였으나, 말씀은 그들을 갈라놓았다.

기적은 환호를 일으켰지만, 진리는 결단을 요구하였다.

떠났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

그들은 발걸음을 옮긴 것이 아니라, 마음을 거두었던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외적 동행은 있었으나, 말씀 앞에서의 내적 순종은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떠남은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신앙의 이탈이었다.

생명의 떡을 거부한 것이다. 그들은 떡의 기적은 원했으나, 떡이신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공급은 원했으나, 자신을 내어주신 구원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장면은 ‘표적 중심’의 신앙과 ‘말씀 중심’의 신앙이 갈라지는 순간이며,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드러나는 자리이다.

요 6:67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강요가 아니다. 예수님은 붙잡지 않으신다. 억지로 남게 하지 않으시며, 조건을 완화하지도 않으신다. 참된 믿음은 강제되지 않는다. 사랑도, 믿음도 자유 속에서만 진실하다.

예수님은 무리를 붙들기 위해 말씀을 낮추지 않으시고, 떠나는 자들을 설득하여 되돌려 세우지도 않으셨고, 대신 진리를 제시하시고, 선택은 제자들에게 맡기셨다.

여기서 믿음의 본질이 드러난다. 믿음은 분위기에 의해 유지되는 집단 심리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의 결단이다. 떠나는 자들은 표적이 끝나자 떠났고, 남는 자들은 말씀 때문에 남았다.

남은 자는 말씀 때문에 남았다. 그들은 이해했기 때문에 남은 것이 아니라, 신뢰했기 때문이다.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말씀하신 분을 신뢰했기에 떠나지 않았다.

요 6:68-69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은 요한복음의 핵심을 요약한다. 많은 사람이 떠난 자리에서 베드로는 남는 자의 신앙을 대표하여 말한다.

그의 고백은 단순한 충성 선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신앙적 고백이다.

“영생의 말씀”(ῥήματα ζωῆς αἰωνίου. 레마타 조에스 아이오니우)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여기서 ‘ῥήματα’는 단순한 정보나 교훈이 아니라, 생명을 전달하는 살아 있는 말씀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식을 제공하는 말이 아니라, 존재를 살리는 말이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라고 말한다.

생명을 주는 말씀이 주께 있으니, 떠날 수 없다는 고백이다.

요한은 여기서 ‘λόγος’(로고스. 본질적 말씀)가 아닌, ‘ῥήμα’(레마. 실제로 일어날 구체적 말씀)를 사용하고 있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πεπιστεύκαμεν καὶ ἐγνώκαμεν)는 완료형으로 사용되어, 이미 믿었고 그 믿음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과거의 일회적 결단이 아니라, 현재까지 효력을 가지는 확정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단회적 감정이 아니라, 확정된 신뢰이다. 감정이 사라져도, 이해가 완전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는 고백이다.

요 6:70-71 가룟 유다를 제자로 택하신 이유. (13장 가룟 유다 참조)

<64절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처음부터”(ἐξ ἀρχῆς)는 단순한 시간적 시작이 아니라, 사건의 근원적 차원을 포함한다.

‘ἀρχή’(아르케)는 ‘시작’이라는 뜻이지만, 동시에 ‘근원, 기원, 통치의 원리’라는 의미도 가진다. 따라서 ‘ἐξ ἀρχῆς’는 단순히 어떤 시점의 초기가 아니라, 그 사건의 근본적 출발점과 관련된 표현이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우연히 당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셨다.

이는 예수님의 전지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십자가 사건이 돌발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안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우연의 연속으로 보지 않는다.

유다의 배신 역시 그 구속사의 흐름 속에 포함되어 있다.

<마26:24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유다의 책임을 분명히 한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필요한 하나의 매개체로 이미 예정하여 택한 자였다.

사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필요에 따라 사용하신다. 욥기의 사건처럼 사탄은 절대적 주권자가 아니라, 허락된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피조물일 뿐이다.

하나님은 악의 행위까지도 궁극적으로는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70절 유다의 정체 :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는 단순히 사탄 그 자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탄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라는 뜻이다.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선포하셨다.

많은 이들이 표적 때문에 따랐으나, 말씀 앞에서 갈라졌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성취가 아니라, 인자께서 주시는 생명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한다.

많은 제자가 떠났으나, 남은 자들은 이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신뢰가 분명했기 때문에 남았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라는 고백은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존재의 방향 전환이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기적의 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넘어 말씀을 붙드는 자리에서 드러난다. 표적은 지나가지만, 말씀은 생명을 남긴다.